

### 소운 이한경 화백, 세계지재권기구 전시장서 전시회 기념 리셉션 갖다

지난달 7일 제네바에 소재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전시장에서는 주 제네바대표부 최 혁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오프링겐(Oftringen)에서 활동하는 소운 이한경 화백의 동양화 전시회 개최 기념 리셉션이 있었다.

소운 이한경 화백은 1963년 2월 경북대 의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 근무 중 68년 11월에 스위스 파송 간호사로 선발되어 84년 6월까지 쥐리히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93년 10월 베른 소재 불그돌프(Burgdorf) 병원에서 은퇴할 때까지 간호사 생활을 계속하였다.

간호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 80년 9월부터 88년 12월 말까지 쥐리히 소재 쿤스트게벨베슐레(Kunstgewerbeschule) 미술대학에서 자연주의 사실화가 아놀드 클레이(Arnold Klee) 교수에게 사사하였으며, 루체른 소재 쿤스트 세미나 미술학교(Kunst Seminar)의 쿠트라(Kutra) 교수에게도 사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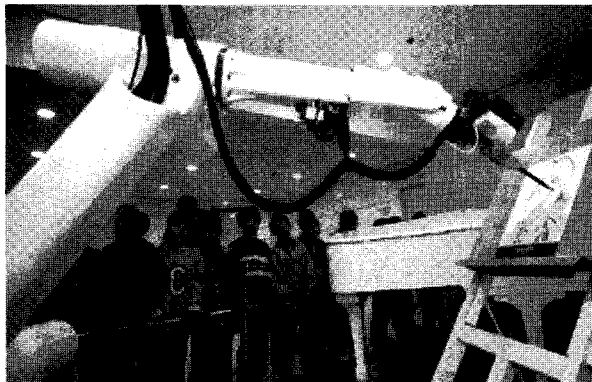
같은 기간 중 어릴 때 배운 붓글씨를 기초로 스위스와 서울을 오가며 서울미대 동양화과 일랑 이종상 교수로부터도 사사 하였다. 쥐리히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스위스 생활 초기, 주 4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 2일 미술학교에 다니는 등 미술세계에 대한 대단한 집념을 보였다.

이 화백은 2001년 12월 4일부터 22일 까지 뉴욕 소호 8층 아티스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 등 이태리, 독일, 터키,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수많은 전시회를 가졌고 금번 전시회도 스위스에서만 40번째 전시회에 해당한다.

2000년에는 쥐리히 국제미술전에 초대작가로 출품하였으며, 2001년에는 작품 '생활의 원천'으로 프랑스 툴아이즌(Tonneins) 미술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03년에는 작품 '생존을 위한 노력'으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페르멜 메달(Medaille de vermeil)을 수여 받기도 하였다.

최 혁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리셉션의 기념사에서 '소운의 그림을 통하여 동·서양 문화의 접점에서 고뇌하며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작가의 정신 세계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 과학의 달 맞아 '온·오프라인 과학축제' 열다



▲ 2001년 서울시 교육청이 '현장체험 학습기관'으로 지정한 LG사이언스홀. 생명과학, 에너지, 신소재, 가상현실 등 10가지 주제별로 첨단과학 체험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로봇이 초상화를 그려주는 코너는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

지난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과학축제가 풍성하게 열렸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과학기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제5회 과학꿈잔치'를 21일부터 23일까지 구미 금오공고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과학체험마당, 가족과 함께 하는 로켓과 로켓 만들기, 과학퀴즈마당, 발명체험마당 등 학생들과 학부모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40여 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우수발명품과 과학탐구대회 우수작품, 천체관측사진 등이 전시되고, 구미1대학 자동차 동아리가 운영하는 특별 프로그램과 경북중등 수학교육연구회의 '수학을 만져보자' 등이 진행되었다.

인터넷에서는 초등전문교육사이트인 에듀모아(<http://www.edumoa.com>)가 '컴퓨터로 그리는 우주과학상상화 대회'가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대구·경북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컴퓨터 그래픽전은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상상력, 전체 구성, 표현기법, 주제 표현력, 저작도구 활용도 등을 심사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저학년과 고학년부문으로 참여해 그림판, 포토샵, 페인터샵 등 다양한 그래픽 저작도구를 사용, 중등부 및 고등부는 플래시(Flash) 또는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림을 그리는 등으로 참여하는 등 풍성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 휴대전화, 만능 리모콘 기능의 특허출원 꾸준히 증가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조정하는 리모콘 기능을 접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자동차, 전자기기 등을 제어하는 기술의 개발이 계속 되고 있으며 특허출원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원격제어 관련 특허출원은 2000년 5건, 2001년 21건, 2002년 25건, 2003년 31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동차 제어, 원격감시 제어, 전자기기 제어, 출입문 제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 응용분야의 특허기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제어분야에서는 휴대전화로 자동차를 원격지에서 시동하거나 자동차의 문을 단속할 수 있으며, 원격감시 제어 분야에서는 원격지에 있는 환자나 자동화 기계의 실제 상

태를 화상으로 감시하거나, 전자기기 제어분야에서는 휴대전화 수신모듈을 장착한 가정 내의 가전기기를 통합 제어하며, 출입문 제어장치분야에서는 방문자의 화상정보신호를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원격지에서 방문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도어를 개폐하고, 휴대전화와 출입문 간에 블루투스(Blue tooth) 통신방식을 적용하여 집, 사무실의 출입문이나 차량의 도어를 원격으로 개방코드 판독기를 장착한 도어잠금 장치에 이동통신단말기의 표시부에 하는 기술 등이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컨버전스 경향에 따라 휴대폰에 디지털 카메라, MP3, TV 등의 기능이 통합되고 있는데, 다양한 원격제어 기능이 휴대전화에 융합되어 만능 리모콘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진다.

### 생명공학 특허 부문 아벤티스·LG 최다 출원

국내 제약사 가운데 LG 생명과학이 생명공학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9일 한국특허정보원의 '생명공학 특허 기술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부터 작년 10월까지 국내 생명공학 분야에서 아벤티스가 총 6백47건의 특허를 출원,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국내 기업인 LG가 4백69건, CJ 3백68건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동안 국내 출원인 중에는 LG, CJ,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십자, 대상, 과학기술원, 농촌진흥청 등이 상위 20대 다출원인에 포함됐다.

의약품 분야의 특허출원 경향을 살펴보면 국내 업체 및 연구기관에서는 동식물·미생물 유래 제제분야에서 비교적 많은 출원이 이뤄진 반면 아벤티스, GSK 등의 외자사의 경우 항원·항체 제제, 펩티드 제제, 유전자 치료제 등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사 광고 원문 가입 문의  
• 홈페이지 [www.inventor.or.kr](http://www.inventor.or.kr)  
• 사무국 (02)538-2710 / (02)538-2702  
Fax (02)538-2714

### 공짜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번호부

요즘 알뜰족 사이에서는 인터넷 전화번호부 사이트가 인기다. 전화로 거는 114 안내는 통화당 120원을 내야 하지만 인터넷으로 번호를 찾으면 공짜이기 때문. 주소는 물론 지도 위에 위치까지 표시해주기 때문에 114 안내보다 훨씬 실속 있다.

대표적인 인터넷 전화번호부로는 '한미르'를 꼽을 수 있다. 한달 방문자수가 4백만명이 넘어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인명, 상호, 업종 등 기본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지도 위치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렛츠 114'는 부동산, 이사, 택배, 꽃배달 등 번호가 업종별로 나뉘어 등록돼 있어 편리하다. 다른 사이트와 달리 전화번호만 입력해도 위치 검색이 가능하다. 회식하기 좋은 곳, 아이들과 함께 놀러갈 만한 곳 등 테마별 정보도 풍부한 편.

'아이수퍼페이지'는 업종별 기본 검색뿐만 아니라 구인·구직 정보까지 제공한다. 단 인명으로 번호검색이 안되는 것이 단점.

'나이스 114'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주 찾는 전화번호를 개인 주소록에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 법무부, 특허청, 감사원 등 정부기관의 번호를 찾는다면 관공서 번호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행정기관 전화번호 안내서비스'가 편리하다. 부서별로 전화, 팩스번호 검색도 가능하다.

#### 주요 인터넷 전화번호부 사이트

사이트명	주소	정보제공
한미르	<a href="http://www.hanmir.com">www.hanmir.com</a>	자체 제작한 지도로 위치 제공
아이수퍼페이지	<a href="http://www.isuperpage.co.kr">www.isuperpage.co.kr</a>	구인·구직 정보
렛츠 114	<a href="http://www.lets114.co.kr">www.lets114.co.kr</a>	번호만 검색하고 지도에 위치 표시
나이스 114	<a href="http://www.nice114.co.kr">www.nice114.co.kr</a>	업체별 상세 정보
야후엘로페이지	<a href="http://yp.yahoo.co.kr">yp.yahoo.co.kr</a>	우편번호 검색
엠포스엘로페이지	<a href="http://yp.empas.com">yp.empas.com</a>	자주 찾는 관공서·행정기관 번호
정부전화번호 안내서비스	<a href="http://phone.korea.go.kr">phone.korea.go.kr</a>	내선·팩스번호 등 실시간 검색

## 기고문

## 알려지지 않은 발명

백건수 (백건수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e-mail: patpen@patpen.co.kr  
문의전화 (02)538-3951



신규성이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출원일 이전에 알려지지 않아야 함을 말하며, 진보성이란 특허출원일 이전에 알려진 발명으로부터 당해 기술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기준으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함을 말한다.

통계적으로 볼 때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받는 것보다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받는 것이 더 많다. 심사관 입장에서 보면 신규성 보다 진보성으로 거절하는 것이 훨씬 더 거절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발명가가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을 개발하였을 때에는 자부심과 두려움이 교차하게 된다. 자부심이란 그러한 아이디어를 창조했다는 것에 대한 것이고, 두려움이란 과연 이 기술에 시장성이 있을까에 대한 것이다. 물론 특허는 아이디어 수준에서도 출원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샘플을 만들 필요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아이디어가 잘 구현될까 하는 점도 두려움에 포함될 것이다.

발명가가 이러한 생각들로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자부심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알려지지 않은 기술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그 발명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두려움을 먼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허청 심사관 역시 발명가의 자부심을 먼저 고려해 주면, 발명가의 의도를 보다 더 잘 파악하게 되어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유연성을 더 가지게 된다고 본다.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알려진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결합된 경우나 기술의 전용 경우(타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당해 발명에 적용하는 경우) 등에 발명자가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였는가를 판단하고, 그 발명의 효과를 따져서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발명이 입장에서 기술 개발 과정 중의 시행착오 과정과 여러 가지 실시 가능한 중에 이 발명을 선택한 이유 등을 명세서에 기재하여도 좋을 것이다. 심사관을 쉽게 설득시키는 방법은 명세서 기재로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특허출원을 함에 있어서 발명가는 심사관의 입장에서 가능한 많은 생각을 하여 명세서 작성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개인 발명가가 발명한 것을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개인 발명가는 자본력, 시장장악력, 실험비 등이 매우 부족하다. 기업체는 외부로 눈을 돌려 이러한 발명가들을 찾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발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는 것은 기업체의 본질인 것이다.

한편 개인 발명가로서 자신의 발명을 기업체가 채택해 주기를 바라다면, 스스로 발로 뛰어나며 기업체에 자신의 발명에 대해 홍보하여야 한다. 개인 발명가는 발명과 마케팅을 구별하고 필요하다면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도 좋다. 그리고 자신의 발명을 자신만이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때론 비합리적이 될 수 있다.

이제 자신의 알려지지 않은 발명을 들고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 보자. 알려지지 않은 발명은 우리들 모두가 함께 보존해야 할 국가 원동력이다.

## 밀레니엄 기술상, '버너스 리' 첫 수상자로 선정

지난 1991년 월드와이드웹(www)을 발명해 인터넷 혁명을 몰고 온 버너스 리 박사(48)가 지난달 15일 핀란드 '밀레니엄 기술상'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8명으로 구성된 수상자선정위원회는 이날 '웹은 중요한 정보를 얻는 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며 '특히 버너스 리가 자신이 발명한 인터넷 기술을 상업화하거나 특허를 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았던 점이 높이 샀다'고 선정 경위를 밝혔다.

핀란드의 8개 공공·민간기관이 기금을 출연해 제정한 밀레니엄 기술상은 2년마다 사회 발전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술적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수여되며 상금으로 1백만유로(14억원)가 지급된다.

버너스 리 박사는 69년 발명된 인터넷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공로로 올해 초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은 바 있으며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를 빛낸 기업인 20인' 명단에도 올라와 있다.

그는 현재 미국 보스턴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를 졸업한 그는 유럽소립자물리학연구소(CERN)에서 근무하던 89년 '글로벌 하이퍼텍스트 공간(global hypertext space)'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그는 연구소에서 만나는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외우기가 힘들어 사내 정보망 개발을 건의했으나 묵살됐다. 이에 그는 동료 3명과 유닉스에서 이미지 등의 데이터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내망에 올렸다. 이것이 오늘날의 인터넷 주소체계인 URL과 웹페이지 언어인 HTML이다.

1955년 6월 8일 런던에서 컴퓨터 과학자 부부의 아들로 태어난 버너스 리는 일찍부터 컴퓨터에 매료됐다. 그는 마분지로 장난감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놀았으며 이후에는 텔레비전과 여러 부품들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작동하는 컴퓨터를 만들기도 했다. 76년 그는 옥스퍼드대 퀸스칼리지 물리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나서 영국 내 몇 군데 기술 업체에서도 일했다.

밀레니엄 기술상 시상식은 오는 6월 1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릴 예정이다.

### 생활속의 지혜

## Car Love

### 오너 드라이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차량관리법

자동차, 안전하게 타려면 수시로 점검해주는 것이 필수. 차 구석구석을 속속들이 살펴 문제점은 없나 체크해보자!

#### ■ 브레이크 페달

페달을 밟았을 때 평소보다 깊게 밟으면 제동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브레이크 오일의 양,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의 마모 상태를 보고 액을 보충하거나 패드와 라이닝을 교환한다.

#### ■ 유압 경고등

엔진 시동 중 이 경고등이 켜지면 엔진 내부를 순환하는 오일의 압력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엔진오일의 양과 상태, 오일 필터 막힘 등을 확인한다. 수온 게이지 실린더 헤드의 엔진냉각수 온도를 나타낸다. 엔진 시동 중에는 지침이 H와 C 사이에 있는 것이 적당한 온도이다.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 냉각수의 양 또는 수온조절기의 작동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 ■ 사이드 브레이크

브레이크 레버를 최대로 당겼을 때, 당김거리가 너무 높지 않은지 확인한다. 레버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다면 라이닝이 많이 마모되었거나 사이드 케이블이 이완된 경우이므로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 옆에 있는 조정너트를 시계 방향으로 조인다.

#### ■ 에어컨 점검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시스템을 점검한다. 겨울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0~20분 정도 에어컨을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에어컨 냉방 성능이 떨어졌다면 에어컨 가스의 누출 여부와 에어컨 벨트가 손상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만약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는다. 또한 에어컨 작동시 냄새가 나면, 공기 유입통로에 먼지가 쌓여있거나 곰팡이가 끼어있는 것이므로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하여 청소를 한다.

#### ■ 냉각 계통

냉각 계통에 생기는 치명적인 고장은 주로 누수이다. 작은 누수가 엔진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일도 만들기 때문에 차의 바닥에 냉각수가 새는지 잘 살펴본다. 냉각수가 부족하면 보충하는데, 냉각수는 4만km마다 냉각수를 완전히 빼내고 냉각 계통을 세척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라디에이터 코어 부분의 손상을 살펴보고, 고온에 의한 고무호스 등의 균열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팬벨트의 장력과 균열을 확인한다.

#### ■ 브레이크 계통

우선 브레이크액을 점검하는데, 리저브 탱크의 브레이크액이 하한선보다 부족하면 보충해야 한다. 브레이크액은 오래 사용하면 기포가 생겨 베이퍼 록 현상이 생기므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스펀지 현상 때문에 브레이크 반응이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2~3년에 한번씩은 교환하는 것이 좋다.



▲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자동차. 꼼꼼이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은 안전 운전의 필수조건이다.